

4-1 정혜령

5월 11일 (토요일)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참 맑음.

제목 : 구기대회

오늘 구기대회를 하였다. 9시에 학교에 갔다. 운동장은 파구에 올라온 아이들이 무지 많이 있었다. 그리고 우리는 파구를 시작 하였다. 그렇지만 파구대회에서 지고 말 았다. 우리 반 아이들은 풀이 죽고 기분이 안좋았다. 나도 슬펐다. 구기대회가 끝난후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친구랑 놀았다. 민채와 나는 12부터 4시 30분 까지 쭉 즐겁게 배드민턴도 치고 스카어 쿡쿡 Nintendo wii도 하였다. 무지 신나고 재미있었다.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내 친구 정진형 동생 정재형과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다.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왔다. 우리 치킨과 라면을 맛있게 먹고, 놀기 시작하였다. 스티커 주기, 인형 놀이 집(재형), 딱지 치기, Nintendo ds 을 하였고, 친구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. 우리는 2시 00분 쯤에 잠을 들 었다.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고 느꼈다.